

KIA 양현종, 2000이닝 2점대 방어율 성공할까

“지난해보다 하나라도 더 발전하고파”

KIA 타이거즈 20승 투수 양현종(30)이 2018 시즌 목표를 설정했다.

평균 자책점(ERA)을 내리고 투구 이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ERA와 이닝은 선발투수라면 가장 탐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내구성을 말한다.

양현종은 지난 1월 31일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출구길에서 “지난해보다 하나라도 더 발전하고 싶다. 보이는 성적은 화려해도 들여다보면 그리 좋지 않았다. 2016년에 비해 평균자책점, 이닝 등에서 모두 떨어졌다. 전부 나아져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양현종은 작년 정규리그 20승, 한국시리즈 1승 1세이브를 따내고 야구 인생 최고의 해를 보냈다. 31경기에 출전해 193⅓이닝을 던졌고 ERA는 3.44를 기록했다. 다승은 1위, ERA는 5위, 이닝은 2위를 기록했다.

단순히 KIA 에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의 반열에 올랐다. 통산 100승까지 달성했다.

더 이상 이를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ERA와

이닝을 향해 2018시즌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여댔다.

실제로는 2017년 ERA가 2016년(3.68)보다 높다고 말했으나 낮은 것이다. 아바도 2.44를 기록하며 생애 첫 ERA 타이틀을 거머쥔 2015시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투구 이닝은 2016년(200⅓)보다 7이닝이 모자랐다.

결국은 2점대 ERA와 200이닝 재진입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KBO리그는 타고투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2점대 ERA를 기록한 투수는 없었다. kt 피어밴드가 3.04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양현종이 올해 성공한다면 3년 만에 2점대 ERA 진입이다. 200이닝 돌파 투수는 동료 헛터 노에시가 유일했다. 양현종에게는 2년 만에 200이닝 재진입도 중요한 기록이다. 아울러 4년 연속 30경기 선발등판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깨이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30경기와 187⅓이닝을 소화했다. 이제

는 어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양현종은 매년 시즌을 마치면 어깨를 강화 하는 운동에 매달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번 스토브리그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해 대비했다. 사실 평균치만 소화하더라도 역대급 내구성이다.

상대 타자들의 환경도 달라졌다. 홈런왕 박병호(넥센), 교타자 김현수(LG), 3할 20홈런 타자 황재균(kt) 등 미국에서 돌아온 정상급 타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양현종은 작년 세 팀을 상대로 10승 무패, ERA 2.82의 짝물투구를 했다. 작년 양현종에게 강했던 롯데(ERA 4.94)도 타선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현종이 거센 파고를 뚫고 200이닝과 2점대 ERA를 성공할 것인지 새삼 주목된다.



‘평창은 평화’...올림픽 휴전벽, 선수촌에 우뚝

대회기간 선수들 서명으로 장식...휴전정신 유산 남겨

올림픽 휴전 원칙을 지지하고 평화올림픽을 약속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평창선수촌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휴전벽이 세워졌다.

5일 오전 11시 평창선수촌 라이브사이트 무대에서 휴전벽 제막식이 열렸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이회법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석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회법 조직위원장은 ‘평화의 다리 만들기(Building Bridges)’라는 이름의 평창올림픽 휴전벽을 소개하

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올림픽 패밀러, 미디어, 관중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벽을 허물고 소통, 화해, 화합,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는 평화, 대화, 그리고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 휴전벽이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평창 대관령중학교 크로스컨트리 스키 꿈나무 학생들과 휴전벽에 서명했다.

평창올림픽 휴전벽은 대회기간 선수들의 서명으로 장식된다. 대회가 종료되면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에 각각 전시된다. 평창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올림픽 휴전정신을 기리는 유산으로 남게 될 예정이다.

지역구갈매정조정문리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바흐 IOC 위원장 “러시아 선수 도핑 징계 무효, 매우 실망”

CAS 판결 비난 “내부 조직 개편 시급 느껴”



토마스 바흐(65·독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도핑 의혹을 받은 러시아 선수들의 징계를 무효로 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을 비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 평창에 머

물고 있는 바흐 위원장은 CAS의 판결은 “극도로 실망스럽고 불라운 일”이라며 “우리는 이런 판결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보고 CAS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CAS는 지난 1일 2014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도핑 혐의를 받아 IOC로부터 올림픽 영구 출장 금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동계 종목 선수 39명 중 28명의 징계 무효를 결정했다. 도핑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올림픽 영구 출장 금지가 아닌 평창올림픽 퇴출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징계 무효가 결정된 28명 중 15명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허용해달라고 IOC에 요청했다. IOC는 CAS의 결정을 검토해 이들의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OC는 지난해 12월 초 국가 주도 대규모 도핑 혐의를 받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다만 도핑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선수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Olympic Athlete from Russia)로 참가하도록 했고, 169명의 선수가 IOC 승인을 받아 평창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된 상태다.

뉴시스

전남 귀화선수 등 5명 평창동계올림픽 도전

바이애슬론 러시아 귀화 프롤리나 안나 메달 기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전남지역에서는 귀화 선수와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감독 등 총 5명이 출전한다.

광주에서는 이번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박철성(48)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귀화한 프롤리나 안나(34)와 임바꾸모바 예카테리나(28), 스노우보드 종목에 김상겸(28)·김호준(27) 등 5명이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영암 출신의 박 감독은 러시아 귀화선수들에게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프롤리나 안나와 임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지난 2016년 귀화해 전남도체육회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동계체전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프롤리나 안나는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5km에서 금메달과 계주에서 은메달, 임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개인 15km와 스프린트 7.5km에서 각각 금과 은메달을 땀다.

프롤리나 안나는 또 지난 2009년

평창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 2010년 밴쿠버대회 여자 스프린트 4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정상급 기량을 갖고 있어 이번 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다.

프롤리나 안나는 이번대회에서 스프린트 7.5km(10일 오후 8시15분)와 개인 15km(14일 오후 8시15분)에 출전한다. 스프린트 성적이 좋을 경우 12일 오후 7시10분에 열리는 추적 10km에도 출전한다.

임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단체출발 12.5km(17일 오후 8시15분)와 여자 계주(22일 오후 8시15분)에 나선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체육회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상겸은 지난 2016년 2월 열린 동계체전에서 스노우보드 알파인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상겸은 13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예선부터 출전해 기량을 펼친다.

김호준은 지난해 3월부터 전남도체육회 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13일 오후 1시)에 출전한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프롤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전남지역에서는 박철성(48)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귀화한 프롤리나 안나(34·사진 왼쪽)와 임바꾸모바 예카테리나(28), 스카 종목에 김상겸(28·사진 아래 왼쪽)·김호준(27) 등 5명이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나의 경우 사격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메달 획득이 유력하다”며 “실상 종목 첫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준성 기자

A매치 4경기 연속 골 김신욱 “코치진이 세세히 잡아준 덕”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터키 전지훈련을 마친 김신욱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매치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러시아월드컵 본선 멤버가 유력해진 김신욱(전북현대)이 각오를 다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주간 터키 안탈리아 훈련을 마치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은 이번 훈련기간 물도바

(1-0 승), 자메이카(2-2 무), 라트비아(1-0 승)와 평가전을 치러 2승무를 거뒀다.

이번 전지 훈련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신욱의 재발견이다. 김신욱은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인)

까지 A매치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김신욱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동아시아컵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태용 감독님을 포함한 (이)근호 형, (이)재성 같은 동료들 덕분이다. 나 혼자 골을 넣어 미안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코치진이 미팅을 통해 세부적인 것을 잡아줬다. 크로스는 어디다 올려야 되고 내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잡아줬다.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그런 적은 없었다. 세밀한 부분을 잡아줘서 완성된 플레이인 것 같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김신욱은 3월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권창훈(다중) 등 유럽과 합류하는 대표팀에서 월드컵 경쟁을 펼쳐야 한다.

“언제나 좋은 선수와 좋은 팀에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냈다.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 상대 수비수가 내게 집중하지 못하면 내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